

2위는 1위 KIA를 이기지 못한다

진격의 KIA, 2위 삼성에 이틀 연속 대역전 드라마

스타우트, 4이닝 5실점 '호된 신고식'... '0-5' → '6-5' 김도영·나성범 쌍포, 이우성 결승타...매직넘버 '12'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막강 화력을 앞세워 이틀 연속 삼성을 제압하고 1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

KIA는 1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9회 초 타진 이우성의 결승타에 힘입어 6-5로 역전승했다.

1위 KIA는 2위 삼성과의 승차를 6.5게임으로 늘리며, 한국시리즈 직행을 위한 매직넘버를 '12'로 줄였다.

전날 화끈한 공격력으로 대역전승을 거둔 KIA는 이날도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며 삼성을 물리쳤다.

타선에서 장단 16안타가 나온 가운데, 나성범이 5타수 4안타(1홈런) 2타점의 맹타를 과시했고, 이우성도 3타수 2안타 2타점의 불방망이를 휘둘렀다.

김도영은 7회 시즌 3호 홈런을 포함, 4타수 2안타 1타점으로 필살 날았다.

35홈런-36도루를 기록 중인 김도영은 이제 40-40클럽 가입에 홈런 5개와 도루 4개만을 남겨두게 됐다. 아울러 타점 2점을 더 추가하면 3(3할)-30(홀

런)-30(도루)-100(득점)-100(타점) 대기록 달성이라는 또 하나의 굵직한 족적을 남기게 된다.

KIA 선발투수 단기 대체 외국인투수 스타우트는 4이닝 4피안타 2볼넷 6삼진 5실점을 기록하며 혹독한 KBO 데뷔전을 치렀다.

승리투수는 전상현에게 돌아갔고, '클로저' 정해영은 시즌 28세이브를 수확해 삼성의 오승환을 제치고 이 부문 단독 1위로 올라섰다.

KIA가 2회말 박병호의 투런포와 연속 안타로 3점을 빼앗기며 분위기를 내렸다. 3회에도 박병호에게 투런포를 허용한 KIA는 4회 추격에 나섰다.

나성범의 2루타와 김선빈의 1루타로 만든 무사 1.3루 상황에서 이우성의 희생플라이로 한점을 만회했다.

KIA는 5회초 2사 이후 김도영이 볼넷으로 출루한 뒤 최형우가 1타점 2루타를 날리며 김도영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이어 나성범도 1타점 적시타를 때려 스코어를 3-5로 좁혔다.

그리고 7회 김도영과 나성범의 홈런 2방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선두 타자 김도영의 솔로포에 이어 1사 후 나성범도 바뀐 투수 오승환을 상대로 5-5 동점을 만드는 대표를 쏘



1일 열린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3대5로 뒤진 7회 추격의 솔로포와 동점포를 터뜨린 김도영(왼쪽)과 나성범.

아올렸다. 스타우트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김기훈과 이준영, 전상현이 삼성 타선을 8회까지 무실점으로 봉쇄한 가운데, KIA는 9회초 마지막 공격에서 기어이 역전에 성공했다.

2사 이후 김선빈의 중견수 안타로 공격의 물꼬를 틀었고, 이우성이 좌중간

2루타를 날렸다. 1루에 있던 대주자 홍종표가 전력질주로 홈을 밟아 스코어 6-5를 만들었다.

결국, KIA는 마무리 정해영이 9회를 무실점으로 막으며, 짜릿한 역전극을 완성했다. 이번 시즌 삼성과의 상대 전적도 10승4패의 압도적 우위를 이어나갔다.



지난달 31일 열린 2024 세계 U-20 육상경기선수권대회 400m 계주 1조 예선에서 39초71의 기록으로 한국신기록을 작성한 한국 20세 이하(U-20) 육상 남자계주팀이 경기후 밝은 표정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역대 최고성적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6위

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팀이 32년 만에 세계주니어육상선수권대회(20세 이하) 결선에 진출해 역대 최고인 6위에 올랐다.

한국은 1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2024 세계주니어육상선수권 남자 400m 계주 결선에서 김정윤(한국체대), 나마디 조엘진(김포과학기술고), 김동진(대구체고), 나현주(광주체고) 순으로 달려 39초80으로 6위를 차지했다.

자메이카가 39초18로 우승했고, 영국이 39초20으로 2위, 태국이 39초39로 3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전날 예선에서 39초71로 1조

1위, 전체 3위로 결선엔 티켓을 손에 넣었다.

세계주니어육상선수권대회 남자 400m 계주에서 한국이 결선 무대에 오른 건 1992년 서울 대회 이후 32년 만이다. 당시 한국은 예선 전체 7위로 결선에 올랐고, 결선에서는 8위를 했다.

이번 리마 대회에서는 예선(39초71)보다 결선 기록(39초80)이 좋지 않았지만, 결선 6위로 세계주니어육상선수권 남자 계주 400m 사상 한국 최고 성적을 올렸다. 다른 계주 경기를 합쳐도 한국 육상 역대 최고 성적이다.

배소현, '나도 시즌 3승'

KG레이디스 오픈 박보겸과 3차 연장서 우승

배소현이 2주 만에 승수를 추가해 2024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시즌 네 번째로 3승 대열에 합류했다. 배소현은 1일 열린 KG 레이디스 오픈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5타를 줄여 합계 14언더파 202타로 박보겸과 동타를 이룬 뒤 3차 연장전 끝에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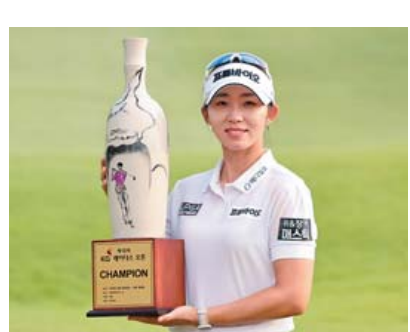
이로써 배소현은 이번 시즌 박현경, 이예린, 박지영과 함께 네 번째로 시즌 3승을 거둔 선수가 됐다.

2라운드 선두 박보겸에 3타 뒤진 공동 5위에서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한 배소현은 전반에 3타를 줄이며 추격을 시작했다.

13번 홀(파4)에 이어 14번 홀(파5)에서도 버디를 잡아 공동 선두로 올라선 배소현은 남은 4개 홀에서 타수를 잃지 않고 박보겸과 동타를 이룬 채 먼저 3라운드를 끝냈다.

박보겸은 18번 홀에서 경기를 기회를 잡았지만 15m 거리의 버디 퍼트가 홀을 맞고 돌아 나오면서 연장전에 들어갔다.

배소현은 18번 홀에서 이어진 1차 연장전에서 티샷을 리프트로 보내는 등 흔들렸지만 9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



1일 열린 '제13회 KG 레이디스 오픈' 마지막 라운드에서 우승한 배소현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공, 같이 버디로 응수한 박보겸과 2차 연장전으로 들어갔다.

배소현과 박보겸은 2차 연장전에서 버디를 잡아내 승부는 3차 연장전으로 이어졌다.

배소현은 3차 연장전에서 두 번째 샷을 그린 앞 가장자리까지 보낸 뒤 퍼터로 공을 굴러 홀 1.4m 붙여 놓았다.

박보겸은 세 번째 샷을 8.7m에 떨어뜨린 뒤 버디 퍼트를 시도했지만, 홀에 맞지 않아 패했다.

배소현은 우승 버디 퍼트를 성공하며 테레본 마스터즈 3차 연장전 우승에 이어 다시 한번 연장전에서 우승하는 기회를 보여줬다.

오는 17일 광주FC 對 ACL 요코하마戰 대비 광주시체육회, 월드컵경기장 잔디 복구 총력

영양제 살포·롤잔디 전면 보식

광주시체육회가 오는 17일 추석 당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광주FC와 일본 요코하마와의 ACL(아시아 챔피언스리그)을 대비해 잔디복구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유례없는 폭염 등 이상기후가 지속됨에 따라 경기장 내 영양제 살포, 잔디 파종 보식, 배토 작업, 통편치 작업 등 잔디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잔디의 특성상 생육을 위한 적정 온도 15-24도가 돼야 하지만

이상기온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광주시체육회는 오는 5일부터 3일간 전문업체를 통해 가장 훼손이 심한 곳에 대해 선수들의 경기력에 지장이 없도록 롤잔디로 전면 보식할 계획이다.

이어 ACL 경기를 위해 기타 부족한 부분은 9월 초까지 마무리해 프로축구 중계를 통해 국제 스포츠도시 광주가 아시아 전 지역에도 홍보될 수 있도록 포츠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다리 강직으로 금메달 놓쳤지만 그래도 행복해”

파리 패럴림픽 한국선수단 첫 메달 주인공 사격 이윤리

“아쉬움보단 목표 이뤘다는 생각이 더 커” 끝까지 않는 도전...주종목 '금빛 정조준'



장애인 여자 사격 간판 이윤리(49·완도군청)는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패럴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다.

2008 베이징 대회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획득했고,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선 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이윤리였기에 아쉬움이 컸다.

도쿄에서 이윤리는 경기 중 큰 실수를 했다. 다리에 강직(몸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와서 '0점'을 쏘고, 그 여파를 이겨내지 못했다.

그로부터 3년 후, 이윤리는 지난달 30일 열린 사격 R2 여자 10m 공기소총 입사(스포츠등급 SH1) 결선에서도 강직 증세로 고개를 떨궜다.

마지막 한 발을 앞두고 2위 인도의 아바니 레카라를 0.8점 차로 앞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듯했으나 마지막 발에서 10.9점 만점에 6.8점을 쏘면서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이윤리는 마지막 방아쇠를 당길 때 도쿄 대회에서 발목을 잡았던 강직 증상에 시달렸고, 총이 흔들리면서 과녁을 크게 빗나갔다. 경기 후 만난 이윤리는 아쉬움을 남



이윤리가 지난달 30일 열린 사격 R2 여자 10m 공기소총 입사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뒤 자신의 훈련일지와 은메달을 보여주며 활짝 웃고 있다.

기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는 “강직이 오지 않았다면 더 좋

았겠지만, 그래도 은메달이란 목표를 이뤄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윤리는 “이미 금메달과 동메달을 따서 이번엔 은메달이어도 좋다고 생각했다”며 “강직이 왔을 때도 아쉬움보단 ‘목표를 이뤘다’는 생각이 더 컸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회에 앞서 자신만의 루틴으로 ‘사격일지’를 적는다는 이윤리는 전날에도 ‘방아쇠, 호흡,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윤리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대한민국은 내가 빛내리라. 내 이름 석 자로’라고 썼다.

이윤리의 도전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윤리는 3일 자신의 주종목인 50m 공기소총 3차세에서 다시 한번 메달을 정조준한다.

이윤리는 “다음 경기에선 반드시 금메달을 따서 태극기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64세 최고령 김옥금, 양궁 단식 메달 문턱서 아쉬움

‘양궁 인생’ 마지막 투혼 혼성단체전 금과녁 쏜다

1960년 3월9일에 태어난 2024 파리 패럴림픽 한국 선수단 최고령 선수 양궁 김옥금(64·광주시청)이 아쉽게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다.

김옥금은 지난달 31일 프랑스 파리의 앙발리드에서 열린 파리 패럴림픽 양궁 여자 단식 스포츠등급 W1에서 4위를 기록했다.

그는 이날 4강전에서 만난 중국 쉐닝 위에게 123-132로 패했고, 동메달 결정전에서 체코 테레자 브랜트르바에게 122-127로 졌다.

경기 후 김옥금은 “4강전에서 실수로 패한 아쉬움이 마음속에 남아서 집중력이 흔들린 것 같다”며 “내가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옥금은 4강전에서 3연드까지 4점 차이로 앞서다가 아쉽게 역전패했다.

그는 5연드 123-132에서 손 마지막 화살이 과녁 밖으로 나가 0점 처리가 되면서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10점을 쏘면 결승 진출에 성공하고, 9점을 쏘면 슛오프를 하는 상황이었는



양궁 대표팀 김옥금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레쟁발리드에서 열린 양궁 여자 컴파운드 W1 동메달 결정전에서 체코를 상대로 경기를 펼치고 있다.

데 긴장감을 이겨내지 못했다. 아쉬움을 삼키던 김옥금은 “(2일부 터 열리는) 혼성 단체전에선 금메달을

따겠다”며 “나이가 있으니 이번 대회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